

### 【붙임 3】

#### 2011년, 2012년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사업 분야별 심사평

본 심사평은 분야별 각 책임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 문학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 4. 13(수) 14:00~16: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2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유안진, 오생근, 박상우, 성석제, 이성겸

#### 2011년도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문학 분야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심의 대상은 모두 5건이었다. 단체 신청 2건, 개인 신청 3건이었다.

심의내용은 교류내용의 수준과 질, 과거의 업적과 미래지향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지원사업이 궁극적으로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진지하고 냉정한 토론을 거쳐 5건의 지원신청사업 중 2건을 선정,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문학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 시각예술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 4. 18(월) 14:00~18: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2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김원방, 김정희, 윤익, 이윤희/ 유진상(불참)

#### 2011년도, 2012년도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은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차원의 문화예술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2011년 추진 사업 52건, 2012년 추진 사업 1건으로 총 53건이 심의대상사업이었으며,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계획의 예술적 수월성’,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 등 4가지 기준에 의거 심의하였다.

신청한 지원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전, 기획전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심포지엄, 강연회 등의 행사가 일부 포함되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Inbound 행사가 15건(28%), 해외에서 개최되는 Outbound 행사가 38건(72%)을 차지하였고 Outbound 행사 중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10건으로 26%, 아시아 4건 10%, 유럽이 20건으로 53%를 차지했으며 유럽 중에서는 독일에서 하는 행사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 사업에 대한 심의는 사전 자료 검토, 제출된 포트폴리오 확인 및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전시의 경우 기획안의 질적 측면, 참여 작가의 예술적 완성도와 함께 해외 전시 공간에서 제공되는 교류 조건, 현지 미술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영향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남미, 동구권 등 해외교류 국가의 다원화 측면도 고려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의 경우는 친선 교류 목적의 전시보다는 기획적인 면을 부각해 접근한 전시에 중점을 두어 선정하였고 행사의 경우는 추진사업의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시각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 연극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 4.21(목) 16:00~18: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이병훈, 김성희, 최현묵, 송현옥, 황치준

### 2011년도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지원신청단체의 예술적 수월성, 충실도와 실행가능성과 실행능력을 중시하였고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사업장소의 경우, 공인된 지명도를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국제교류사업지원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극단 혹은 단체가 해외 연극축제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경우 혹은 해외 유명축제의 워크숍에 초청받아 참가하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예산지원의 경우 단체의 신청금액을 조정하였다. 전체 예산액 규모안에서 해외여비, 공연규모와 항공거리, 출연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였다. 탈락한 몇몇 단체는 지원신청작의 예술성이 미흡한 경우 그리고 다른 공공지원금을 받은 경우이다.

기본적으로 지명도 높은 축제나 행사가 눈에 띄지 않았다. 또한 자체포기 그리고 이 중지원에 따른 탈락 단체도 많았다. 그중에서 지역에서 꾸준히 연극작업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공연을 추진한 전북의 ‘극단까치동’, 연륜과 열정을 가지고 해외워크숍에 참가하는 ‘극단자유’, 아랍문화권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가지려고 한 ‘김성희’, 새로운 도전으로 터키 국가와 교류를 시도한 ‘체험예술꽃밭’ 등에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그 단체들 역시 확실한 효과를 대규모로 기대하기가 다소 미흡하므로 적절한 규모의 지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 2012년도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에 공식초청 받은 작품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축제의 지명도가 높은 국제유명페스티벌에 초청받은 사업장소를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사업단체의 사업성과와 작품의 완성도를 중시하였다. 예산지원액 결정기준은 작품규모, 참가인원수, 항공거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찰스브르크축제에 공식초청된 ‘공연창작집단 뛰다’와 이베로아메리카노국제연극제에 공식초청된 ‘연희단거리패’에 적정한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져 국가이미지 및 연극발전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연극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 무용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 4.12(화) 10:30~12:3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양정수, 박희태, 정은혜, 유인화, 황치준

### 2011년도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무용분야에는 20건이 신청되었고, 배정된 예산은 1억 5천만원이었다. 20건의 신청 사업을 순서대로 검토하고 채점한 결과 8건을 지원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배정된 예산 1억 5천만원을 선정된 8개 사업에 배정하였다.

향후 무용계에 공헌하는 대상을 우선하였으며 전적으로 지원에 의존하는 단체는 배제하였다. 사업계획의 면밀한 준비와 주최측의 교류조건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였다. 공연내용이 사업취지와 합일되고 예술성이 높아서 한국의 춤 문화예술을 선양할 작품을 선정하였다. 지원신청액의 적절성 여부를 고려하여 해외참가의 경우 항공료 및 화물운송료를 기준으로 삼았고, 국내 사업은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였다. 국제교류는 단체의 창작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사의 목적이 순수예술교류활동일 경우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그동안의 교류업적을 통해 기여한 바에 가산점을 주었으며 기 지원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한 단체의 지속사업을 선정하였다.

총 20건의 신청단체중 심포지움을 위한 신청단체들은 배제했다. 또한 '최선무용단' 처럼 학생들이 출연하는 단체의 지원도 배제했다. '박재희새암무용단'은 지역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단체의 모범을 보여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서울발레시어터'는 외국인 안무가의 항공료를 지원하고 해외에서의 공연을 위해 출국하는 단체들은 우선적으로 항공료지원을 제1의 원칙으로 했다. '춤전용M극장'의 경우 외국인무용가지원 등의 발생경비를 포함해 지원했다. 젊은 안무가 이영일, 김남진도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며 지원했다.

대부분 한국을 대표하는 큰 단체들이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 젊은 예술가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무용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 음악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 4.15(금) 10:00~13: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박영근, 허미경, 이석렬, 정준호, 김창욱

### 2011년도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2011년도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2차공모) 음악분야에는 총 16개 단체가 신청하여 총 4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예심의 심사기준은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20%), 사업계획의 예술적 수월성(30%),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30%),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20%)로 지원심의위원들은 제출된 서류와 초청장, 계약서, 대관확인서 등 참고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4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우선, 국제교류사업에 신청한 모든 단체들이 한국을 대표할 만한 능력 있는 단체들로 국제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한국의 음악예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업들이었다. 이 신청 사업들 중 지원 선정 대상은 페스티벌 등 참가 프로그램의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사업과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 그리고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한국 음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으로 고려하였다. 아울러,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에 방점을 두어 상호 초청의 내용이 충실하거나, 초청자의 소속 등이 신빙성이 있는 사업과 교류조건 역시 상호 호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적절한 지원 대상사업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음악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 전통예술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 4.14(목) 15:00~17: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2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박상진, 노복순, 김희선, 김성욱, 이정만

### 2011년도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이번 지원심의회는 2011년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전통예술분야로 총 42건의 사업을 접수하였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4인과 내부 인사 1인으로 구성된 책임심의위원회는 사전 자료 검토와 심의에서의 토론을 거쳐 이 번 공모에서는 10개 사업을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심의 심사기준은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20%), 사업계획의 예술적 수월성(30%),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30%),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20%)로 지원심의위원들은 지원 서류와 첨부자료 등을 검토하여 최종 10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독창성과 보편성, 그리고 전통성과 정체성이 잘 드러난 공연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아울러 사업의 파급력을 중시하여, 초청 단체나 행사의 예술적 수월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지원서류의 충실성 또한 중요한 선정의 근거가 되었으며,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사업 역시 지원 고려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과 d다알러 발전 가능성이 있는 단체의 좋은 프로그램도 지역에 관계없이 포함하여 지원하였다. 이 모든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더하여 국제교류사업의 특성상 초청장 및 상호계약조건 등의 유무 역시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 2012년도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이번 지원심의회는 2012년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전통예술분야로 총 1건의 사업을 접수하였다. 5인으로 구성된 책임심의위원회는 사전 자료 검토와 심의에서의 토론을 거쳐 이 번 공모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예심의 심사기준은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20%), 사업계획의 예술적 수월성(30%),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30%),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20%)로 지원심의위원들은 지원 서류와 첨부자료 등을 검토하여 최종 10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신청한 사업은 사업내용이 미비한 점이 있어, 실현가능성이 어려워 보여 이 번 심의에서 선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3차 공모 시에는 더 충실한 내용을 가진 좋은 사업들이 신청하기를 기대해 본다.

신청한 사업은 사업내용이 미비한 점이 있어, 실현가능성이 어려워 보여 이 번 심의에서 선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3차 공모 시에는 더 충실한 내용을 가진 좋은 사업들이 신청하기를 기대해 본다.

전통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 2011년도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2차 사업 분야별 심사평

본 심사평은 분야별 각 책임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 문학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 4. 13(수) 14:00~16: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2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유안진, 오생근, 박상우, 성석제, 이성겸

#### 2011년도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2차

1건밖에 신청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참가대상 프로그램의 내용, 신청자의 문학적 역량과 발전가능성, 지원필요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진행하였다. 지원 적합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문학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 시각예술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 4. 18(월) 14:00~18: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2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김원방, 김정희, 윤익, 이윤희, 유진상(불참)

#### 2011년도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2차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은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교류를 활성화하고 예술가의 역량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심의 대상사업은 25건이었다.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계획의 예술적 수월성’,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 등 4가지 기준에 의거 심의하였다.

신청한 레지던스 기관은 미국(7건, 28%), 독일(5건, 20%), 프랑스(4건, 16%), 중국(2건, 8%) 등의 순서였으며 기획분야 레지던스로 신청한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동 사업에 대한 심의는 사전 자료 검토, 제출된 포트폴리오 확인 및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작가의 예술활동 수준을 검토하여 진취적이고 해외 미술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작가들을 선정하였으며 레지던스 기관의 지명도,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도 고려하였다. 특별히 변별력이 없는 레지던스 기관의 경우에는 여러 작가에게 기회를 주는 측면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시각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 무용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 4.12(화) 10:30~12:3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양정수, 박희태, 정은혜, 유인화, 황치준

### 2011년도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2차

무용분야에는 4건이 신청되었고, 배정된 예산은 1천 7백만원이었다. 5인의 무용책임심의위원은 사전에 지원신청서를 검토하고 심의에 참여하였고, 신청사업 순서대로 토론을 하여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20%, 사업계획의 예술적 수월성 3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0%, 사업계획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비중으로 구성된 세부심의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4건의 신청사업을 순서대로 검토하고 채점한 결과 2건을 지원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배정된 예산 1천 7백만원 중 1천 5백만원을 선정된 2개 사업에 다음과 같이 배정하였다. 지원금은 사업내용과 예산편성내용을 고려하여 항공료와, 체재비, 작품 제작비등에 사용하도록 배정하였다.

젊은 무용가로서 장래 무용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유망주 위주로 선정하였다. 레지던스 활동계획이 잘 짜여 있고 그 내용이 개인의 예술적 역량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되며 사업 수행이 명확하고 지원액의 집행이 본사업의 취지와 합일되는지를 고려하였다.

김정은은 '독일, 핀란드레지던스 참가'사업으로 독일, 핀란드레지던스에 한 달 동안 참가해 무용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수인재로서 핀란드와 독일과의 교류조건이 명확하게 제시됐고 교류조건도 합리적이었다. 또한 창작신작을 2편 발표하는 기획안도 참신했다. 개인의 역량과 레지던스프로그램이 훌륭하고 서류가 충실하고 탄탄하여 어떤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항공료와 작품제작비로 1천만원 지원하였다.

장수미는 '독일레지던스참가'사업으로 독일에서 활동하는 무용가로서 현지에서 연주를 통한 안무법접근을 추진한 실천력이 있으며, 스튜디오리허설과 공연 등을 통해 개인의 무용예술적 역량향상과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무용의 창작력 강화에 기대를 줄 만한 기획안을 제출했다. 프로젝트 과정과 레지던스 과정이 세계무용시장에서 얻어낼 효과가 크다고 본다. 차후 국제춤행사와 춤네트워크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한국춤발전의 바탕이 되길 바란다. 현지에서 참여하므로 스튜디오렌트비와 작품제작비 등 5백만원 지원하였다.

무용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 전통예술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 4.14(목) 15:00~17: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2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박상진, 노복순, 김희선, 김성욱, 이정만

### 2011년도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2차

이번 지원심의회는 2011년 일반공모형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2차 전통예술분야로 총 4건의 레지던스 신청이 있었다. 5인의 책임심의회위원회는 사전 자료 검토와 심의에서의 토론을 거쳐 이 번 2차 지원에서는 2인의 레지던스 참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심의 심사기준은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20%), 사업계획의 예술적 수월성(30%),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30%),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20%)로 책임심의회위원들은 지원 서류와 첨부된 문서 등을 검토하여 최종 2인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지원자 개개인의 능력과 계획서의 충실도가 인상 깊은 고려 대상이었으며, 개개인의 경력과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할 능력 역시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서 해외 레지던스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는 2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2인이 진행할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해 본다.

전통예술분야 책임심의회위원 일동